



[산업] 최강 연비 중형급 만족감 기아차 '올 뉴 K3' 05



Economy

코스피	2375.06 (-27.10)	코스닥	845.00 (-15.23)
금리 (국고채 3년)	2.31 (+0.02)	환율 (원-달러)	1082.00 (+1.70) (5일)

‘거수기 거부’ 국민연금의 환골탈태 600兆 무기 자본시장 파수꾼 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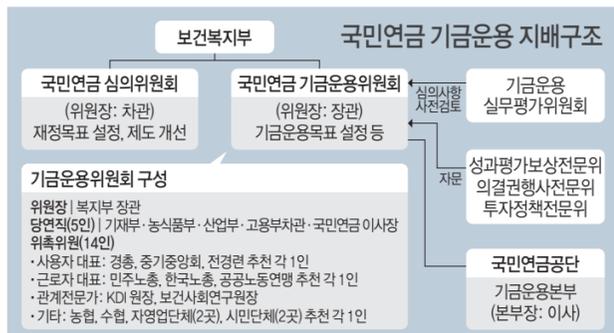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

(上) 공공성 강화 나사다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금 독립·전문성 확보 위해 기금운용총 상설화 법안 마련

국민연금이 최근 ‘환골탈태’하고 있다. ‘설립 30년 만에 운용자산 600조원 돌파’, ‘일본-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 등 양적 가치 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한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에 주력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하여 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메트로신문은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시장과의 소통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고 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법안을 마련한다.

기금운용위는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표면적인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이지만 현재로서는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는 1년에 몇 차례만 열린다. 각계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역시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회의당 평균 2~

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할 뿐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낸다는 설명이다.

◆ ‘충충시야’ 시어머니 여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국민연금 이사장, 사용자 및 근로자,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는 정부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가장 많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일부 위촉 위원들까지 합하면 사실상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법적으로 국민연금의 현행 지배구조에선 기금 관리 및 운용권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목표와 주요 투자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실제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속해 있다 보니 공단 내 이사

에 불과한 기금운용본부장은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까지 더하면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한 둘이 아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통한 독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통한 독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등 세계적인 공적연금 운용사는 기금 고갈 문제 등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지난 90년대 별도의 기금운용 공사를 설립했다”며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장, 100여 명의 직원이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성과에 따라 평가보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해 논의를 통해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연직은 2~3명으로 축소하고 현재 가입자 대표 성격인 구조를 상근자가 포함된 전문가 집단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3면에 계속)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2018 100세 플러스 포럼’

100세 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 ‘2018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저성장 지속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를 주제로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세션1),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세션2)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정부 규제 속 부동산 투자, 기업공개(IPO) 전 엔젤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 운용 사장, 프리 IPO 투자 전문가 정은현 퀴텐인베스트먼트 대표, 똑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부장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을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재테크 전략을 접하시길 기대합니다.

- 행사명 : 2018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제 : 100세시대 자산 불리기와 재테크
- 일시 : 3월 28일(수) 08:30~13:00(VIP 티타임 08:30~08:55)
- 장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 문의·참가 신청 : 전화 (02)721-9826, e-메일 :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오찬 제공)
- 주최 : 메트로신문

줄이는 스톡옵션 신화... W게임즈 수십억대 적파



정의용-서훈 ‘평양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고공행진에 대박 박신정 前 부사장 119억 원용준 CFO 75억 차익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게임즈’의 주가 고공행진으로 이 회사 임직원들이 2000% (최대 3751.8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며 ‘대박’ 꿈에 부풀고 있다. 몇 년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 스톡옵션 대박 사례는 2000년대 초반 벤처기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만큼 더블유게임즈 임직원이 벤처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용준 더블유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12월 12만7386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행사가 가격은 주당 3190원(총 4억 636만원)이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6만2400원) 보유주식 가치는 79억 4888만원이다. 평가차익만 75억 4252만원(수익률 1756.11%)에 달한다.

그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KRX)를 박차고 나간 인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스톡옵션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임직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류문봉 외 8명도 9만4788주를 행사(주당 행사가 1620원)해 59억 1477만원의 평가 차익을 내고 있다. 수익률로 따지면 3751.85%에 달한다. 1인당 6억 4013만원의 평가차익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김민수 외 28명도 8만 1835주를 행사해 48억 4545만원의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수익률은 1856.11%에 달한다. 최재영 외 3명은 2518주를 행사해 1억 4909만



코스피가 27.10포인트 내린 2,375.06으로 장을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원의 평가차익이 나고 있다.

더블유게임즈를 떠난 ‘창업공신’ 박신정 전 부사장은 지난해 19만 9219주를 행사했다. 현재 주가 기준 119억원의 평가차익을 남기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미행사 수량 37만 3347주를 보유중이다.

현재 더블유게임즈 임직원 수는 191명(2017년 3분기 기준)에 이르

는데 2014년 이후 38명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상태다. 행사된 스톡옵션은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5월에 지급된 물량 중 일부로 총 50만 5746주(창업공신 박신정 전 부사장 포함)이다.

더블유게임즈 임직원 가운데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스톡옵션 물량 중 현재 77만 8988주가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다. 행사 가격은 2560원, 3190원에 불과하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070.47%(평균 행사가 2875원 기준)에 달한다.

더블유게임즈는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1.2% 증가한 8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3193억원으로 105.2%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348억원으로 28.7% 줄었다.

(6면에 계속)

/김민호 기자 kmh@